“코로나 시대 불교, 제도적 苦 해결을”

조계종 화합과혁신위, ‘한국불교 2040’ 좌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불교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합과혁신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한국불교 2040’을 주제로 기획 좌담을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은유와 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과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사회적 · 제도적 고통 해결에 불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명법 스님은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과 주체로 내몰리며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됐다”면서 “현대 종교는 그들의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세력 확장을 통해 개인이 겪는 불만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치환하고 유예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불교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님은 “성과주체로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려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는 불교가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개인의 고통’을 훨씬 넘어섰음을 강조하며, 이는 불교에게도 큰 도전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화합과혁신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한국불교 2040’을 주제로 기획 좌담을 개최했다.

적극적 사회 참여 · 이타행 필요
생태 · 생명불교로 전환 이뤄야
‘종교 자유’ 아닌 공공성 강화돼
한국불교 ‘공동의 선’ 헌신해야

박 소장은 “은둔적이고 개인적인 불교 수행이나 축원과 기도, 제례로는 현재의 고(苦)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위기에 대처하려면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고통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이타행을 주문했다. 박 소장은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나눔,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 코로나 블랙 등에 대한 심리적 방역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불교의 가르침 중 사회적 생태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코로나19로 사찰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교들이 돌봄과 생명 같은 윤리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의 핵심은 ‘공공성’ 내지 ‘공동의 선’의 실현에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조 교수는 “불교는 모두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체류 백제관음상, 이젠 민족의 품으로”

조계종, 대변인 명의 입장문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현재 일본의 한 소장가가 소장하고 있는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사진〉’을 민족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11월 19일 대변인 삼혜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본서 소재가 확인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1907년 부여 규암면에서 발견되어 대구의 컬렉터이자 의사인 이치다 지로(市田次郎)에게 1922년에 전해진 뒤 일본으로 건너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불상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의 불상 가운데 출토지역, 조성연대를 비롯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내력 및 소장자가 밝혀진 불상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유일하다.

조계종은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은 7세기 불상 중 탁월한 조형미를 가지고 있으며, 1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국가와 민족, 그리고 민중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해 왔다”면서 “정부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탁월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이 반드시 국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환수가 필요한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환지본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른 곳으로 거래가 되어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종단도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종교인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11월 17일 4대 종교 기도회
종교별 방식으로 릴레이기도

불교 법회와 기독교 예배가 한 자리서 열렸다. 찬송가와 ‘천수경’, 승복과 사제복. 종교는 달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염원은 같았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대 종교인들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4대 종단 기도회’를 진행했다. 각 종교의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기도법석이다.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사노위)와 무지개예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길 바라는 종교인들의 기도로 진행됐다.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법회에 앞서 “사노위는 올 초부터 매월 2회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오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니 더욱 든든하고 감동적”이라며 “불교는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추구하는 종교인만큼, 모두가 차별로 인한 고통 없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안부와 격려를 전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을 멈춰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생명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며 “무거운 차별의 굴레를 온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수자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소망을 담아 기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며,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동국대, 보리가람학교 발전 힘 보탠다

11월 17일 조계종과 업무협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원과
학생 등 인력 교환제 추진도

동국대가 조계종이 탄자니아에 설립 · 운영 중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교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탠다.

조계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총무원장)과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11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 상호교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름다운동행과 동국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으며,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 주재 공관과의 협업을 위한 기술자문, 나아가 한국과 탄자니아 간 문화교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과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학장 이병무) 간 협약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의 교육 · 연구를 위한 학생 교환, 상호방문을 통한 교수 · 연구원 · 행정직원 교환 등 상호간 인력 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교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현재 3년제인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학생들이 동국대로 편입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졸업 후 활동범위도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 아름다운동행과 동국대는 11월 17일 보리가람농업대학과의 상호교류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양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과 연구 분야의 출판물 및 정보교환, 협력 교육과 연구 등 학술적인 교류 토대도 함께 마련했다.

원행 스님은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의 확고한 기반은 농업이기에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배출하는 학생들이 본국 국민들의 생활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며 “보리가람농업기술학교 설립 당시 前 총무원장 스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너무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보통 원력으로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지에 불연을 심는 포교도 중요하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학생 등 학교구성원, 나아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동국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의 노하우를 적극 전수해 미흡한 학제를 다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도 “학술 교류 등 전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자니아에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 더욱 발전해 포교에도 일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과 상임이사 일화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김승용 기획처장, 임중연 국제처장, 이병무 바이오시스템대학장, 성정석 평가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2020답게살겠습니다 운동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 주관 | 7대종단 평신도협의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희망의 빛이 되어

마음을 잇다

2020 한사평 한마음잇기운동 주요행사
| 주제 “마음을 잇다”

2020 마음을 잇다는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의 7대종단평신도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존중과 배려,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답게살기'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입니다.

문의 | 한사평 사무국 02-777-2013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헌혈캠페인
11. 8(일) 10:00-16:00 대전 판암동성당
11. 8(일) 10:00-16:00 서산 예천동성당
11. 15(일) 10:00-16:00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 앞마당
11. 17(화) 10:00-16:00 서울 명동성당 앞
11. 18(수) 9:00-16:00 서울 동대문구청 앞
11. 20(금) 9:00-16:00 서울 서초구청 내 보건소 앞
11. 20(금) 9:00-16:00 익산 원광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술세미나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
일시 | 11월 14일 (토) 14:00 - 17:00
장소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YouTube cpbc TV 채널 라이브

평화나눔 랜선음악회
일시 | 11월 28일 (토) 15:00 - 17:00
장소 | 천도교중앙대교당 YouTube cpbc TV 채널 라이브
1부 : 트리니타스쳄버오케스트(지휘 정주현)
트리니타스합창단(지휘 이성영)
cpbc소년소녀합창단(지휘 이지영)
소프라노 석동령/ 테너 전낙원 / 창 김영리
2부 : 김연자 / 조항조 / 정수라 / 신혜